

2017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출제경향

2017년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은 앞서 치러진 5급공채보다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구일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이 지난해 입법고시는 물론 올해 치러진 5급공채에 비해서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도 5급공채보다 까다로웠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평이다.

헌법은 공직자의 국가관과 공직가치관 확립 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입법고시 및 5급공채 1차시험에 도입됐다. 헌법은 Pass/Fail제로 운영되며 기준점수인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시생 중 PSAT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법고시보다 먼저 시행된 5급공채에서는 대다수 문제가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며 예상을 밑도는 무난한 난이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입법고시에서는 난도가 다소 상승된 모습이다.

응시생 A씨는 “5급공채 헌법보다 어려웠고 국회직 8급보다는 다소 쉬운 수준이었다.”고 이번 헌법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설명했다. 5급공채에 비해 판례의 비중도 늘었고 일부 지문에서 부속법령 등도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헌법과 함께 1교시에 치러진 언어논리영역은 PSAT 3과목 중에서는 가장 무난했다는 평을 얻음과 동시에 5급공채에 비해서는 다소 쉽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반응을 얻었다. 올해 5급공채 언어논리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언어논리영역도 평이한 출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